

# 문화전쟁 속의 문화변혁: 기독교 문화의 역동적 활성화를 위하여<sup>1)</sup>

추태화

(Ph.D., 안양대, 숭실대 출강)

## I. 여는 말: 21세기와 문화

문화는 20세기 초반 하더라도 고상한 예술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문화라는 용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금방 베토벤의 교향곡, 헨델의 메시아, 밀턴의 실락원, 괴테의 파우스트 등과 같은 고전적인 작품을 연상하였다. 그러나 이제 문화는 하나의 보통명사가 되었다. 문화는 음식과 만나서 음식문화, 결혼과 만나서 결혼문화, 소비와 만나서 소비문화, 심지어 쓰레기와 만나서 쓰레기문화, 화장실과 만나서 화장실문화라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흔히 쓰이고 있다.

과거 기독교는 고상하고 고전적인 문화를 일으켜 왔음이 분명하다.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종교적이며 문화적인 기품을 교육하고 전달하여

---

1) 본 논문은 필자의 저서 「21세기 기독교 인문학의 전망」(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1)에 실린 “문화전쟁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일부 수정한 것이다.

계몽적인 면을 역사에 남겨놓았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 기독교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대가 급변하고 세속문화가 교회로 유입되어 기독교를 침식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열쇠는 한 가지만은 아니겠지만 본고는 문화라는 포괄적이고 현실적인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인류의 역사와 문화사를 살펴보면 19세기까지는 비교적 전통과 역사,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해 왔음이 확실하다. 조화와 공존에 대한 노력을 서구문화사는 인류 역사의 변증법적 발전과정으로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중세 시대부터 실례를 든다면 르네상스, 휴머니즘, 종교개혁, 반동종교개혁, 바로크, 계몽주의, 경건주의, 질풍노도, 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신고전-낭만주의, 세기말운동, 초현실주의, 표현주의, 실존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질서와 구조를 지니고 있는 듯하던 문화사의 변천과정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우선 인류가 가공할 만한 두 차례 세계대전을 치름으로써 인간의 상황(*conditio humana*)은 극단적인 회의와 절망에 떨어지게 되었고, 신학에서도 사신신학(*Gott-ist-tot-theologie*), “아우슈비츠 후의 신학”(Theologie nach Auschwitz), 탈신화화(*Entmythologisierung*) 등이 대두하게 되어 복음적인 신앙에 치명타를 입혔다. 여기에 가세하여 문학은 허무와 절망에 빠진 현대인들을 적나라한 모습으로 등장시켰다. 현대인들은 오지도 않는 신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희화화되거나(S. Beckett, 「고도를 기다리며」), 일상적인 허무주의 속에서 허덕이거나(무라카미 하루키, 「상실의 시대」), 냉혈적인 실존의 가벼움에 몸을 맡겨 버리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M. Kundera,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고 보는 것이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휩싸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출발을 1960년대 즈음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위에서 바라본 문화사를 세심히 살펴보면 이

미 과거의 문화적 양태 속에 포스트모더니즘적 성향이 싹트었다고 본다. 성경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전 1:9)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치관, 세계관 등 넓은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문화 변화 과정에 결정적인 지각변동을 가져오고 있다. 탈중심주의, 탈전통주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오리엔탈리즘, 해체주의 등의 개념을 앞세우고 다가온 후기모더니즘 운동은 정치, 경제, 사회 등 거시적(macro)인 면에서만 아니라, 가족과 개인의 삶에 존재하는 미시적(micro)이고 은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 변화는 그러나 인간의 삶과 실존에 불확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sup>2)</sup>

포스트모더니즘과 함께 다가온 의식의 변화 외에도 현대인들은 또 하나의 해일과 같은 변화의 물결을 맞아들여야 했다. 즉 농경시대, 산업시대를 잇는 정보화 시대가 몰고 온 변혁이다. 또한 정보전달 방식도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구세대, 신세대간의 차이가 현격하게 드러나고 있다. 현대인들은 자의적이건 타의적이건 정치, 종교, 민족 등으로 구분되는 문화지역이 충돌하는 갈등상황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sup>3)</sup>

이러한 삶의 변화 속에서 21세기는 그 어느 시대보다 문화를 강조하

2) 포스트모더니즘을 “지구적 차원의 무정신적 정신”이라고 이해한 기틀린 교수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참고. H. Snyder, *Earth Currents: The Struggle for the World's Soul*, 김현석 역(서울: 아가페 출판사, 1998), p. 368. 포스트모던적 변화가 가져올 종말을 카노크는 “가족의 붕괴, 광기의 대가, 가치의 혼란”으로 설명하고 있다. 참고. W.Knoke, *Bold New World: The Essential Road Map to the Twenty-First Century*, 황태호, 최기철 역, 「21세기 쇼크」(서울: 경향신문사, 1997), pp. 395-418.

3) 헌팅턴은 이질적인 문명간의 충돌이 앞으로의 미래사회에 출현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이에 반해 독일의 Mueller 교수는 미래사회는 문명충돌이 아니라, 문명화해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어 흥미롭다. 참고. N. Gardels(ed.), *At Century End*, 강광식 역, 「미래의 원시사회: 21세기의 희망과 공포」(서울: 영림카디널, 1997), pp. 88-99.

는 시대가 될 것이다. 문화의 시대가 아니 될 수 없는 이유는 인간과 문화의 본래적 상관관계 때문이다. 인간은 문화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존재를 상실한 현대인들은 문화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적이며 집단적인 정체성(identity)을 다시 확인하려 할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문화가 산업화되어 현대인의 경제활동에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신지식인 운동으로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불확정 시대에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길은 인류학적 견지에서라도, 경제적 계산에서도 모두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문화는 부가가치만 높은 것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삶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기에 끊임없는 관심의 대상으로 남는다.

그렇다면 시대를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문화를 기독교 세계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교회는 현대에 와서 급속히 세속화 되어가는 문화와 현대인들에게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 II. 현대는 문화전쟁의 시대다

### 문화도 전쟁이 될 수 있는가

현대 문화가 이상(abnormal) 상태로 진전된 현상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용어가 전쟁(war)이란 말이다.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슬로건은 처음에 “폭력과의 전쟁”이란 말로 출발하였다. 그러더니 “범죄와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등의 말이 생겨나고, 우리 나라에서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그래도 문화전쟁(culture war)이란 말은 생소하게 들린다. 어떻게 해서 이 용어가 등장한 것일까.

유럽의 사상사는 19세기에 종의 적자생존원리를 사회를 이해하는 데 적용하였다. 이는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하여 그 이론을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데 활용한 것에 기인한다. 용불용설, 약육강식, 적자생존 등은 자연 안에서 조화와 발전을 이루어가는 동식물계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

나라 인간의 사회적 생존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다윈주의(social darwinism)라고 명명하였다. 사회적 다윈주의의 골자는 생존에 적합한 우성은 살아남고, 열성은 언젠가는 멸종한다는 이론이다. 적자생존 원리는 유물론적 세계관, 낭만주의적 영웅론과 혼합되어 하나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변하게 되었다. 사회적 다윈주의를 따르는 정치가들은 한 집단을 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하여 열성이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무차별 숙청하는 데 이 이론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사회적 다윈주의가 백년을 뛰어넘어 다시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현대 사회가 이 이론을 증명이라도 하듯 경영이론에 도입하여 자본집약적 운영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 예로서 현대에는 경영컨셉트가 맞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주장, 벤처산업일수록 자본과 기술 그리고 사회적 적응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 수용자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충족시켜 주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주장,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든지 열성(劣性)적인 것은 잘라내야 한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하나의 생존 싸움이 되어 가고, 거기에 자본이 가미될수록 그 강도는 더하게 된다. 이 약육강식의 법칙이 문화를 도구로 삼게 된 것이다. 상업자본과 결합한 문화는 문화의 본래적인 가치를 나타내기보다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나라간의 문화는 문화교류라는 관계적인 표현만으로 설명하기 부족하다. 세계화, 국제화 바람으로 불기 시작한 문화 교류는 사실 미국화인가, 새로운 문화제국주의인가라는 의문을 던지게 했다. 이를 한 가지 경우로 보더라도 국가간의 문화교류는 이제 문화상품을 매개체로 하는 산업자본의 흐름으로 보는 것이다.

---

4) 독일 나치시대의 집권자들은 이 이데올로기를 유대인 정책에 반영하였다. 그들은 열성인자인 유대인들이 우성인자로 구성된 게르만족 사회에 편입되어 사회를 몰락시킨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유대인들을 숙청하는 것은 당연한 정책이라며 홀로코스트(Holocaust)를 감행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정신박약자, 장애인, 환자 등을 그런 이유로 강제로 불임수술 내지는 죽음으로 몰아내었다.

이로 보건대 문화전쟁은 두 가지 의미에서 사용된다. 첫째는 문화를 상품화하여 자본을 잠식해 들어가는 싸움으로 보는 경우이며, 둘째는 그렇게 점령한 문화상품으로 문화소비자를 지적, 감정적, 가치관적, 세계관적 체계모니로 지배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첫 번째가 문화상품을 둘러싸고 먹고 먹히는 현실적인 상권전쟁이라면, 두 번째는 문화상품을 등에 업고 나타나는 문화제국주의의 지배와 종속관계를 의미한다 하겠다. 이는 특정한 문화로 구분되는 문화 성층화(成層化)에 따른 사회 신분, 계급 형성에 그치지 않고, 영적인 분리로 이어지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본다. 영적 대립에 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 포스트모더니즘과 삶의 정황

문화라는 개념은 1950년도의 연구결과만 해도 100가지 정도로 많은 개념 규정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sup>5)</sup> 현재는 200가지가 넘는 개념이 형성되어 있다. 이는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면서, 문화 자체의 구조가 그만큼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대적 변화는 문화의 수직구조를 해체하고 상대화하기에 이르렀다. 과거의 문화는 이원화된 구조로 형성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포스트모더니즘을 통해 주변 문화(subculture)가 일반문화에 편입되게 되었다. 예전에는 대체로 상위문화 또는 고급문화(high culture)로 불리는 상류사회의 문화와 포퓰러 문화(popular culture)라 불리는 일반문화로 나뉘어져 있었다. 사회구조와 질서도 이에 따라 편성되었다. 가치관, 관습, 생활양태 등도 이런 구분에 의해 나뉘어졌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지하문화(underground culture)조차도 차별대우에서 벗어나고 당당히 하나의 문화세력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문화가 무엇이기에 현대 사회에 각광을 받는 개념으로 부

5) 참고. 김광익 외, 「문화의 다학문적 접근」(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p. 1.

상하게 된 것일까. 문화의 개념 정의가 다양하니 세부적으로 접근하기는 불가능하다. 여기서는 통상 이해되는 문화개념을 기초로 하고 지나가야 할 것이다.

문화는 우선 격조 있는 예술을 뜻한다. 이는 고도의 창조적 상상력을 가진 예술가들에 의해 창작된 음악과 미술, 문학과 연극, 건축 등을 지칭하였다. 이것을 인문학적인 용어를 빌려 표현하자면 인간의 정신이 창조한 정신세계의 표출이라 하겠다.<sup>6)</sup>

문화를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자면 문화인류학이나 사회학의 도움을 빌려야 할 것이다. 이 분야의 언어로 정의하자면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관습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해 얻어진 다른 모든 능력이나 관습들을 포함하는 복합총체”를 말한다.<sup>7)</sup> 여기까지는 전통적인 의미의 문화 이해이다.

그런데 현시대에 와서 문화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활동을 일컫는 말로 확장되었다.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먹고 잠자고 욕망하는 모든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탈바꿈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문화를 말하자면 삶의 스타일(life style) 또는 삶의 양태(pattern of life)라는 추상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의미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반 퍼슨(Van Peursen)의 말대로 “문화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다.”<sup>8)</sup> 문화가 어떻게 이해되고 정의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문화위임 명령(cultural mandate, 창 1:28)을 벗어날 수는 없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듯이 문화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인간은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문화 속에서 죽는다

6) 인문학적인 정의는 일명 문화주의라는 용어로 대변되는데, 이는 영국의 S. T. Coleridge, M. Arnold, T. S. Eliot 등에 의하여 정립되었다.

7) 한상복 외, 「문화인류학개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28쇄)], p.65.

8) 강영안, 「문화개념의 철학적 배경」, 「두레사상」(1995 겨울호), p. 93에서 재인용.

고 말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을 따라다니는 것이 자연(nature)이라기보다는 문화(culture)라 해야 할 것이다. 현대인들이 자연보다는 도시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인간은 문화를 만들고 문화 속에 살고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하이데거의 개념을 인용하자면 문화는 존재의 집(das Haus des Seins)인 셈이다. 더욱이 이제는 문화가 현대인이 누리는 생활 활동의 방식을 일컫는 말이 되었기에 문화라는 말은 현대인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문화가 여러 면에서 인간에게 부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문화가 오히려 역기능적인 요소로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문명비판의 목소리는 현대에 와서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

일찍이 나치시대의 독재와 미국 상업 자본시장을 체험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학자들은 대중문화가 가지고 있는 병폐를 간파하였다. 아도르노(Adorno)는 문화가 산업화됨으로써 문화의 인간적 가치가 사라지고 문화가 상품화되어 간다고 지적했다. 문화산업론(cultural industries)은 그러나 현대에 와서 그 기세를 더욱 떨치고 있다. 마르쿠제(Marcuse)는 기술적으로 단순하게 반복하며, 문화에 마취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차원적(one-dimensional) 인간이라고 경고했다. 프롬(Fromm)은 현대인들이 정작 존재(das Sein)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소유(das Haben)에만 치중한다고 관찰하였다.

문화는 인간의 표현이며 시대의 산물이다. 문화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표현이며, 삶의 심층적 구조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를 관찰하면 인간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축적이 나타나게 된다. 틸리히가 지적한 바, 종교와 문화의 관계는 적절하다.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며,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Religion is the substance of culture, and culture is the form of religion)<sup>9)</sup>. 삶과 문화의 관계를 이 명제로부터 유추하자면 다음과 같다. “삶은 문화의 실체이며, 문화는 삶의 형식이다.”

문화가 문제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대중문화가 기세를 떨치면서부터이다.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은 제1, 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시대를 맞이하면서 이데올로기 갈등에 회의를 느끼고, 과거 300여 년 전부터 시도되어 온 문명의 거대한 줄기인 모더니즘(modernism)에 대한 절망감으로 생겨났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도구로 활용하려고 대중문화를 선택하면서 문화전선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불확정성, 단편화, 탈정전화, 혼성모방, 대중주의, 퍼포먼스, 재현불가능성, 보편내재성 등을 무기로 하여 모더니즘의 역사와 세계를 부정하고 극복하려 하고 있다.<sup>9)</sup>

원래 대중이라는 개념이 불특정 대상에 대하여 붙인 명칭인 것처럼 대중문화도 그 주체가 누구인지 확실치 않다. 현재 대중문화는 과거지향적 사회에 도전하며, 대중화 시대를 선언하는 등 순기능적인 면이 없지 않으나 반면에 역기능적인 현상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대중문화는 과연 누가 그 상품을 만드는가, 누가 기호화(encoding)하는가에 따라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로 인하여 문화를 만드는 문화생산자의 가치관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도 대중문화를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프로이트의 심리학 이론을 전수한 라강은 대중문화에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욕망(desire)이 도사리고 있음을 간파한다. 대중의 욕망이 걸러지지 않고 문화상품을 통하여 그대로 전해지는 가운데 문화는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의 분출구이자 욕망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다.

9) P. Tillich, *Theology of Culture*, 김경수 역, 「문화의 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p. 52. 여기에서 톨리히는 좀더 자세히 종교와 문화의 관계를 설명한다. “궁극적인 관심인 종교는 문화에 의미를 주는 실체(the meaning-giving substance)이며, 문화는 종교의 근본적인 관심이 그 자신을 표현하는 형식의 전부이다.”

10) 참고 정정호, “포스트모더니즘과 문학비평이론”, 「현대 문학비평이론의 전망」,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4), pp. 207-217.

또한 문화는 성층화 현상을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과거에는 귀족과 평민, 부자와 가난한 자 등으로 구분되던 사회적 계층이 서서히 해체되어 민주시민사회가 되었다. 외형적으로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문화를 통하여 사회 안에 새로운 집단이 생겨나게 되었다. 문화를 소비하는 계층은 연령별로, 기호별로, 장르별로 따로 모인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문화를 통하여 드러내고 표출하기에 평등한 사회 구조 안에 새로운 계층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대중문화는 과거의 정치권력구조를 해체한 것처럼 보이거나 실상은 새로운 헤게모니(hegemony)를 휘두르고 있다는 관점이 그람시(Gramsci)에 의해 대두되었다. 예전에는 정치권력을 가진 자들이 휘두르던 지배구조가 현대에 와서는 문화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존재한다는 것이다. 소위 문화에도 정치학(politics of culture)이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정치적 지배를 거부하는 현대사회에 권력은 무력과 같은 힘이 아니라 문화를 통해 지배하는 대중조작(manipulation)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대중문화는 특정한 집단을 자기의 목적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이다. 대중은 문화를 소비하는 집단으로 생각하지만 그 문화에 의하여 자신도 모르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바로 이 점이 대중문화를 무시할 수 없는 근거이다.

### 문화전쟁이 영적 전쟁으로

문화는 인간을 주체로 형성되기 때문에 가치중립적(value-neutral)일 수 없다. 문화를 생산하는 주체는 인격과 가치관의 소유자인 인간이다. 문화는 문화생산자의 인격을 거쳐서 탄생하게 되므로 어떤 문화라 하더라도 가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현대의 대중문화는 암암리에 헤게모니, 이데올로기와 같은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소비자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전쟁은 이미 선전포고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11)</sup>

여기서 문제삼는 것은 문화전쟁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측면이다. 즉

문화를 생산하는 부류와 소비하는 부류 간에 차이를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나아가 문화생산자 그룹이 대중을 지배하려는 저의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문화 전쟁이 영적 측면을 가지는 것은 문화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면 이해가 된다. 문화를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다 할지라도 문화는 인간의 내면을 통하여 생산된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또한 문화는 인간의 상징적 의미체계로서 인간은 문화를 통하여 호흡한다. 문화 안에는 상상력이라 불리는 인간의 창조성이 활동하기에 문화는 정신적이며 영적인 차원과 관계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삶(Life, 가정, 일상생활, 종교생활, 직장생활, 기타 여러 체험을 가능케 하는 현실)
  - 영성(Spirituality, 한 인격체 안에 통합된 신앙관, 가치관, 세계관, 성경체험, 감정, 윤리관, 정서 등)
  - 상상력(Imagination, 일상의 상상력: 꿈, 욕망, 의지, 예술적 상상력: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등)
  - 문화(문화 각 현상들)

문화전쟁이 영적 전쟁(spiritual warfare)의 양상을 띠는 사실은 오늘 의 대중문화를 보면 극단적으로 드러난다.

청소년들에게 어필하는 음악의 경우, 폭력적이며 선정적이며 자살을 부추기는 가사들이 있다. 욕설과 직설적인 분노, 염세주의적 감정, 허무주의적 경향 등은 질풍노도의 시대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영적으로

---

11) 문화전쟁을 영적 전쟁으로 파악하고 문화분석을 시도한 예는 신상언의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켄 마이어스의 *All God's Children and Blue Suede Shoes*를 「대중문화는 기독교의 적인가 동지인가」(서울: 나침반, 1997)라고 번역한 것 역시 대중문화와 기독교 문화의 대립적 관계를 의식한 것이라고 보인다.

악영향을 주게 된다.<sup>12)</sup>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상대주의, 허무주의, 신비적 초월주의, 종교적 혼합주의 등 여러 미혹하는 세계관이 현대인들을 유혹하고 있다. 대중문학에서는 작가의 신변잡기류의 가벼운 이야기와 자유로운 성적 상상력을 다룬 내용이 난무하고, 전통적인 서사 구조의 작품보다는 환상적이고 주술적인 내용들이 독자들에게 환영받고 있다.<sup>13)</sup> 진보라는 이름으로 가정의 해체와 가정질서를 거부하는 극단적 페미니즘, 동성애 등은 다반사가 되고 있다.

특히 영상시대에 돌입하여 영화와 비디오 산업 분야에서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지고 있다. N-세대로 불리는 청소년들은 그들의 의사 통로로서 감각(sensibility)과 이미지(image)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극적인 영상물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고 있다. 일상생활화된 사이버 공간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이버 매체는 폭력성, 선정성, 엽기신드롬과 같은 비인간적인 흥밋거리로 채색되고 있다.<sup>14)</sup>

포스트모더니즘이 추구하는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주제는 세속화된 종교를 대치하려는 경향을 띠고 있다. 이에 영향을 받은 대중문화, 예를 들면 초월명상 음악, 명상음악 치료, 향기요법 다이어트, 향기요법 치료 등은 단순한 취미나 문화생활의 수준을 벗어나 유사종교(pseudoreligion)의 모습을 하고 있다. 대중문화가 서서히 종교적인 성향을 갖고 소

12) 대중음악 중에는 하드 락으로 갈수록 종교혼합주의, 신성모독, 사단 숭배, 마약, 프리섹스, 자살을 부추기는 주제의 가사들로 채색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강인중, 「대중 음악 불륜을 낮춰요」(서울: 낮은올타리, 1999)를 참고하라.

13) 1990년대 들어와 인기를 끌고 있는 장르는 환상문학(Fantasy Literature)으로, 종래의 작가들의 작품보다도 환상문학의 요소를 구사하는 젊은 작가들이 환영받고 있다. (드래곤라자 등). 주제 면에서도 성문학이 단연 주도적인 현상을 보인다 (마광수, 「즐거운 사라」; 하일지, 「경마장 가는 길」; 장정일, 「내게 거짓말을 해봐」; 서갑숙, 「나도 때론 포르노그래피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등).

14) 청소년들이 사이버 매체에 중독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조선일보는 현재 약 50만 명의 청소년들이 중독되어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참고. 조선일보, 2000년 11월 7일자.

비자를 유혹하는 실정이다.

### III. 문화 변화 속의 기독교적 정체성

시대의 표현으로서 문화와 인간이 처한 현실은 다양하며 복잡적이다.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전제조건이 되는 현실적 요소는 교회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 문화변혁자로서의 교회 그 소원화 현상

R. 니버는 그의 영향력 있는 저술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기독교와 문화의 다섯 가지 관계를 기술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문화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Christ as the Transformer of culture)는 그가 기대하는 기독교 문화의 과정이자 완성이다.<sup>15)</sup>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는 당시 그리스-로마 문화와 상당한 갈등을 빚었다. 이는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문화의 리더로서 서구의 역사와 문화를 이끌어 갔다. 유럽사를 살펴보면 이 사실은 금방 확인된다. 교회사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유럽의 역사를 바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다. 예를 들어 영국의 대영박물관, 웨스트민스터 사원, 프랑스의 노트르담 사원, 독일의 쾰른 대성당, 이태리의 바티칸 등은 유럽 문화를 대표하는 기독교 문화유적으로 손꼽는다. 또한 유럽 역사에서 교황과 각 나라의 왕조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교회사적 증거들이 면면히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역사와 문화의 리더로서 교회는 우리 나라에서도 그 예가 뚜렷하다. 우리 나라에 기독교가 전래될 때 기독교는 민족사와 운명을 같이 했다. 개화기 때 기독교가 벌인 사회계몽운동, 삼일운동, 일제하 민족정신 고

---

15) 참고. R.Niebuhr, *Christ and Culture*, 김재준 역, 「그리스도와 문화」(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취, 전후 복구사업, 민주화 운동 등은 기독교가 우리 나라를 이끌어 갔다는 귀한 증거가 된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과거에 실재했던 교회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여러 문화 장르에서 기독교와 교회가 희화화되고, 신앙은 비시대적인 옷이라고 거부되는 실정이다.

교회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전도와 교회성장이 퇴보한다는 통계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 이 문제를 임상적으로 다룬 책을 보면, 젊은 층들이 왜 교회를 멀리하는가 하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대답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 세상과 너무 동떨어진 설교 때문에,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무시하는 듯하기 때문에,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내가 어울리지 않아서, 너무 따분하고 지루해서.”<sup>16)</sup>

그 원인을 문화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자. 하나는 톨리히가 그 답을 제공한다. 톨리히는 종래의 신학을 현대인들에게 접맥시키기 위하여 상관관계(Correlation)라는 용어를 도입하였다. 그가 말하는 상관관계는 과거의 신학적 텍스트를 현대적 컨텍스트의 상황에서 재해석하려는 시도이다. 현대인들의 언어로 말해 주지 않으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배려이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문화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지적은 에즈베리 신학교 선교학 교수 조지 헌터의 주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현대 선교의 벽이 “문화장애물”이라는 요소에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크고 확산된 장애물은 문화장애물이다.”<sup>17)</sup>

문화의 급변과 함께 교회의 정체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6) 참고 이상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1가지 이유」(서울:기독신문사, 2000) 이만재,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서울:규장문화사, 1998) 이성희, 「미래사회와 미래교회: 21세기 한국교회 메가트렌드」(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7).

17) p. 178 f. George G. Hunter, *Church for the Unchurched*, 홍용표 역, 「불신자들에게 열린 교회가 성장한다」(서울:서로사랑, 1999), p. 104.

교회가 어떻게 하였길래 현대인들로부터 소원시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단순히 대답할 수는 없다. 문화에 국한하여 생각한다면, 교회가 현대 문화를 이끌어 갈 위치를 상실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것은 모더니티가 더 이상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모더니티를 대변하는 자리에 있는 교회도 그렇다는 것이다.

### 교회와 문화의 상관성

현대는 문화를 외면하고서는 그 실체를 바로 볼 수 없을 정도다. 문화는 현대의 상징이자 실체인 것이다. 교회의 정체성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보는 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문화를 돌아봐야 한다. 왜냐하면 문화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문화는 곧 사람이다.

교회는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어야 하며, 그들이 어떤 삶의 정황 속에 거하고 있는지 상황을 읽어야 한다는 등식이 성립한다. 교회가 왜 문화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자.

첫째로 문화의 개념이 변화하였다. 삶의 모든 분야는 이제 문화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양한 문화를 생산하고 있다. 과거에 문화는 교양, 전문지식, 자본, 권력을 가진 특수한 계층과 집단이 만든다고 여겼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면 보통 고급문화를 생각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문화는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법이 되었다. 문화는 사회구성원간의 대화의 방법이며,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된 것이다. 문화는 현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코드이다. 문화는 더 이상 어떤 특정한 집단만이 향유하는 점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누리는 삶의 스타일이다.

둘째, 현대인들은 문화로 말한다. 현대인들은 자신을 좀처럼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나 문화라는 매개체를 통하여서는 자신을 드러낸다. 자신의 삶의 스타일, 가치관, 인격, 취미, 생활 정도 등 모든 것은 각 분야를 대변하는 문화매체를 통하여 나타난다. 대중음악, 영화, 의상 등은 그 좋은

예이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의 표현방식인 문화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대중주의(populism)로 인한 문화적 다원성은 삶의 실제분야에서 학문의 분야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학문 연구 분야에서도 새로운 방법론이 개발되고 있다. 즉 문화연구(Cultural Studies)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인문학 분야에서(영미권의 경우 주로 영문학과에서), 인류학, 사회학, 언론학, 심리학 등의 분야가 독자적인 방법론과 분야에만 고립되어 있지 않고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Study)가 실행되고 있다.

넷째, 현재 세상 학문은 문화를 응용하여 여러 치유(Healing)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악치료, 미술치료, 연극치료, 심리치료 등이 그것이다. 예전에는 단순히 심리상담실, 명상수행 정도로 운영되던 것이 이제는 치료의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비신앙적인 심리치료는 인간의 그릇된 이해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거론하지 않는다. 세상적 방식이 난무하게 되면 복음을 접해도 식상하게 느끼거나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세상적 방법이 만연하기 전에 빨리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목회 스타일도 변화를 겪고 있다. 기독교계에서는 21세기가 평신도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20여 년 전에 사랑의 교회 옥한흠 목사를 통하여 “평신도”라는 개념을 한국 교회에 부각시켰다. 제자화 운동이 그것이다.

교회가 확장되고, 사회봉사를 위하여 사역이 다양하게 요구됨으로써 과거처럼 목회자에게만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세분화된 현대 사회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하겠다. 현대는 다양한 욕구를 지닌 (multi-need) 시대이다. 따라서 교회의 사역에도 다양한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평신도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기에 평신도 신학, 평신도 지도자 양성(Lay Ministries)과 같은 분야들이 개발되고 교육됨으로써 문화 분야도 자연스럽게 언급되어야 한다.

교회 사역과 마찬가지로 선교에서도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다. 전문사역자가 필요하다는 요청은 일부 지역들에서 선교사로 공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제약이 있으며, 또한 그 지역이 요구하는 다양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우선적으로 요청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선교사들도 신학 교육 외에 파송지역에 필요한 전문훈련을 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sup>18)</sup> 확대되는 선교사 훈련을 위하여 문화선교, 평신도 사역을 위하여 문화목회(cultural ministries)등과 같은 용어들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교회 안에 요구되는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역시 신학과 문화에 대한 인식을 겸비한 리더들이 필요하다. 미국 교회에서 불기 시작한 소그룹 운동은 문화사역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그룹 목회가 미래교회의 성장에 큰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sup>19)</sup> 과거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 즉 가부장적인 구조, 하향식 전달 방식, 폐쇄적인 의사소통, 예전 중심적 예배형식, 목회자의 존적 목회방식 등은 열린 사회에서 점점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sup>20)</sup> 열린 교회를 지향하는 윌로우 크릭 교회의 경우 2천여 개, 새소망교회(New Hope Community Church)는 무려 6천여 개의 소그룹(TLC, Tender Loving Care Group)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sup>21)</sup> 수많은 소그룹은 성경 공부, 사회봉사, 교제 외에도 다양한 기호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삶을 풍요롭게 구성하기 위하여 문화활동과 이를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문화사역에 관심을 두고 모인다.

18) 참고. 이성희, 앞의 책, pp. 196-197.

19) 참고. 최근 한국에 불기 시작한 셀목회 운동은 다음 책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R. Neighbour, *Where do we go from here?: A Guidebook for Cell Group Churches*, 장학일 역, 「셀목회 지침서」(서울: 서로 사랑, 1999); 김정옥,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라」(서울: 기독교신문사, 1998).

20) 참고. 이성희, 앞의 책, pp. 27-60.

21) 참고. 김정옥, 앞의 책, p. 75.

### 기독교 문화의 선교적 성격

모든 사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 문화의 목적이다. 문화는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게 여겨질 수 없다.

지금까지 기독교계에서 문화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분야는 선교학과 윤리학 분야라 하겠다. 그러나 양쪽 분야는 현재 행해지고 있는 문화연구라는 면에서 볼 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다. 먼저 윤리학 분야에서는 문화연구가 객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기독교 윤리학은 문화 그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윤리학적 명제를 끌어내려는 의도를 내세웠기에 문화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등한히 하였고, 비기독교인들을 설득하기 힘든 면을 지녔다는 것이다. 신학적 목적이 너무 앞섰다는 지적이다.

선교는 인간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구원이 아직 이르지 않은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간다는 것을 말한다. 선교 분야에서 이해하는 문화는 선교전략을 위한 타문화권 이해라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반성이다. 이 때 사용되는 문화는 주로 문화인류학적인 방법으로서 선교 대상 종족이 갖고 있는 종교, 역사, 정치체제, 가치관, 관습 등이 주된 주제였다. 목적은 역시 선교적인 접촉점을 찾으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분야에서도 현대적인 의미의 문화 이해와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화는 기독교 전도나 선교에 있어서 크나큰 의미를 갖는다. 선교에서의 만남은 종교적 만남 외에도 정치, 문화, 사회적 만남 등 다원적인 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대중문화는 엄청난 속도와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교회가 수동적인 자세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세상 문화는 교회 안으로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이미 그 조짐을 걱정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세상문화의 확산에 대하여 기독교 문화는 어떤 자세로 대처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자.

첫째, 현대인의 실존적 정체성(existential identity)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현대인을 일컬어 도시 유목민이라 한다.<sup>24)</sup> 현대인은 사막과 같은 도

시를 떠돌며 실존적으로는 혼란과 방황 속을 살아가고 있다.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사회 속에 가치관, 미래지향점, 자기정체성이 해체되어 가기 때문에 문화는 이 점을 간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소비되는 영화나 음악의 소재들을 살펴보면 정체성의 확립보다는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들의 고민, 절규, 몸부림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성경은 개인의 인격과 존재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여기에 기독교 문화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 기독교 문화는 세상 문화가 그렇게 하듯 혼란과 해체를 방조할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근원으로 회귀하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둘째, 현대 문화는 다원주의, 상대주의, 해체주의로 인하여 파편화되어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절대 진리는 완전히 부정되며 그 결국은 절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해체의 중심이 회의주의이기 때문이다. 불가지론(agnosticism)이 횡행하고 모든 것을 부정(negation)하는 습관이 상식이 된 시대에는 불변의 가치 역시 부정되고 말 것이다.

지금 모든 가치는 각 분야에서 해방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몸(body)의 철학이 등장하여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그 좋은 예이다. 몸의 철학을 주장하는 이들은 몸이라는 가치, 몸 안의 성이라는 현상을 인간과 분리해서 말한다. 불가능한 일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몸과 영혼의 만남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인격체로서, 몸과 인간을 따로 떼어서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런데 성해방론자들은 육체의 해방이라는 이론으로 성해방, 인간해방을 부르짖는다. 몸과 인간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동일체라는 것을 간과한 치명적인 오류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체된 의식에서 나온 모자이크처럼 분산된 문화를 통합하여(integration) 사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기독교 문화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hieracy)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조화와 질서에 있다.

22) 참고. J. Attali, 편혜원·정혜원 역, 「21세기 사전」(서울: 중앙 M&B, 1999), 서문.

셋째, 기독교 문화는 치유하는 문화(culture of healing)가 되어야 한다. 문화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삶의 코드들이 들어 있다. 현대 문화는 그 중에서도 개인의 개인적인 체험(personal experience of life)이 표상화 되는 경향을 띤다. 생의 아픔, 고뇌, 좌절, 사랑의 실패, 운명적 이별, 전쟁, 복수, 분노, 갈등 등과 같은 소재들이 자극적인 상태로 표출된다.

문제는 이러한 생의 어두운 면들이 해결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상처가 그대로 남거나 오히려 악화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문화소비자에게 극적인 요소를 남겨두는 것으로 여운을 남기려는 예술적 장치에 의한 것이다. 잔상은 사람을 사로잡기에 상품효과가 크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신위생적(mental hygiene)으로 사람에게 중독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예를 들면 폭력성 짙은 영상물을 많이 대한 청소년들에게서 폭력성향이 짙게 일어나는 경우가 이를 대변한다.

넷째, 문화가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면 우리 나라의 기독교 문화도 당연히 한국적인 상황을 간과할 수 없게 된다. 기독교가 우리 나라에 들어올 때 서구의 문화와 같이 들어왔으므로 기독교는 일정부분 서구적인 문물을 함께 들여왔다. 이로 인해 우리 나라의 기독교 전파는 곧 서구화라는 등식을 남긴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오류를 범했다. 토착적인 한국문화에 불교, 유교,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는 이유로 기독교가 배척했던 우상숭배를 모든 토착문화에까지 연결시킨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토착적인 것은 무조건 이방종교적 속성이 있다는 편견을 가지거나, 한국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고 서구화에만 골몰하였다는 비판을 받기에 이른 것이다.

기독교 문화는 초기 선교시대부터 그리했던 것처럼 민족의 역사와 방향을 같이하여야 한다. 우리의 토착문화를 교회적으로 수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포용력을 키워야 한다. 이것은 종교적 타협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민족 생활의 저류에 흐르고 있는 심성과 관습, 문화유산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 유행하는 CCM의 경우 서구 음악 일변도이다. 거의 20대 전후를 주고객층으로 한다. 그러하기에 한국

성인 기독교인들에게 다양한 음악을 통하여 찬양을 부르게 한다든가, 영적 활성을 주지 못하게 된다.

다섯째, 기독교 문화가 더 이상 주변 문화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문화는 이제 정치나 경제권력에 아부하거나 시종드는 분야가 아니다. 독자적으로 활동하며 오히려 정치, 경제를 움직이는 분야가 되었다. 그러므로 기독교 문화는 역사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역동적 초월성(dynamic transcendence)이라고 부르고자 한다.<sup>23)</sup>

이는 기독교 문화가 문화소비자에게 상품을 제공하고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단계를 떠나 문화소비자들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기여하는 소명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는 인간 활동의 종합 산물이기에 가능하다. 문화는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움직이기에 한 편의 설교나 한 권의 신앙서적보다 더 강한 메시지, 오래 남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잘 만들어진 한 편의 영화가 얼마나 많은 관객을 모으는지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기독교 문화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획기적인 다른 방법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문화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화는 혁명적인 방법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문화는 서서히 개혁되어야 하는 인간 내면의 변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첫 번째, 문화를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처음부터 선입견을 가지고 문화를 대한다면 결국 이원론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 예를 들면 대중문화

23) "역동적 초월성"은 구약학자 헨슨이 그의 저서 *Dynamic Transcendence*에서 적용한 개념이다. 줄여 말한다면 역동적 초월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권세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끊임없이 그 존재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원리를 기독교 문화가 세상 권세 가운데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당위성으로 받아들인다. 참고 P. Hanson, *Dynamic Transcendence*, 김이곤 역, 「역동적 초월」(서울: 컨콜디아사, 1981).

를 논할 때 선과 악, 타락과 죄와 같은 시각으로 정죄부터 하게 되면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냉정하게 대상을 관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영적 분별력을 적용하여 대처하는 것은 그다음 단계이다.

두 번째, 문화를 보는 다양한 시각을 훈련해야 한다. 문화를 바라볼 때 그 속에 있는 인간의 삶과 체험, 그리고 욕구를 찾아내야 한다. 문화는 상징과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진단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텍스트 읽기를 훈련해야 한다. 문화비평, 문화의 여러 분야를 전문가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 점에서 스텐리 그렌츠 교수는 신학이 문화의 언어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대중문화에는 인간의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 있다는 것이다. 영적으로 갈핍한 현대인들의 목소리에 신앙적 대답을 해줄 준비를 갖춘다면 대중문화는 포기해서는 안 될 분야라는 주장이다.<sup>24)</sup>

세 번째, 적극적인 문화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교회와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중립지대(neutral zone)을 만든다는 전략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문화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문화에서 찾겠다는 말이다.

여러 교회들이 문화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안을 찾아가고 있다. 예를 들면 구도자 예배(seeker service)와 같은 열린 예배(open service)가 그것이다. 새들백교회, 윌로우 크릭교회, 스카이라인 교회 등의 실례를 통하여 잘 알려진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소그룹(small group 또는 cell)을 활용하고 있다.

현대 교회는 문화 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예를 들어 지역 사회의 주민들이 교회 공간을 활용하도록 개방하여 도서관, 자율학습관, 청소년 문화공간, 예식장, 유아방 등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좀더 세분화된 예를 든다면 노인대학, 컴퓨터 교실, 주부교실(꽃꽂이, 요리, 교양 강

24) 참고. 「목회와 신학」(2000. 7월호), pp. 41-51.

좌) 등을 개설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교회와 친하게 되고, 복음을 접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화는 예배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 시간에 자신의 지정의를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예배로 바뀌고 있다. 설교에도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 즉 과거의 설교가 선포적 패턴이었다면 이제는 청중의 감성을 활용하는 설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 동안 이성에 호소하여 설득하여 이지적으로 굴복시키는 설교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청중의 참여를 십분 활용하는 설교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그들의 상상력에 그림을 그리는 이야기식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sup>25)</sup>

넷째, 교회 교육이나 기독교 교육에 문화를 활용해야 한다. 현대 사회 속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여러 교회나 단체에서 연극을 동원하고 있다. 사회극, 역할극, 심리극, 스킷드라마 등 다양한 극예술 활동은 학생들이나 관객들이 비교적 쉽게 복음에 접근할 수 있고,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가시화하여 주제에 몰입하게 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나아가 사회적인 문화운동을 벌여야 한다. (1) 문화소비자 운동은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선별하여 나의 것으로 향유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심을 둔다. 특정한 문화가 비기독교적이라면 문화소비자 입장에서 문화 브레이크 방법(거부, 항의 표시)을 사용할 수도 있겠다. (2) 문화생산자 훈련을 해야 한다. 이는 소비의 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나 기독교 단체 그리고 개인들이 창조적인 문화 생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두 가지 면에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기독교계의 구조상 교회의 능동적 참여와 신학 교육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를 조건으로 한다.

25) 참고. W. Wiersbe, *Preaching & Teaching with Imagination*, 이장우 역, 「상상이 담긴 설교(1권)」, 「이미지에 담긴 설교(2권)」(서울: 요단출판사, 1997).

#### IV. 맺는 말

위에서 언급한 기독교 문화에 대한 토의를 실천의 장으로 확대시키려면 적극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겠다. 이는 교회의 능동적 참여와 신학 교육의 장에서 시도할 수 있는 문화 활성화 방안이기도 하다. 교회나 신학교에서 문화연구 동아리를 만들어 문화를 생활화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전혀 새로운 방법은 아니다. 이미 작은 부분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을 확대하고 보충하는 일이라고 본다. 다음은 방법을 제시해 본 것이다.

가능하면 문화의 여러 분야를 점검하고 적극적인 문화활동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개혁주의 신학자 카이퍼(A. Kuiper)는 기독교 문화에 대한 큰 비전을 실현시키려 한 정치가이자 기독교문화운동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그리스도의 주권에 속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말로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그리스도의 주권(sovareignty Christ)을 주장하였다. 카이퍼는 언론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신문을” 외치는 적극적인 문화활동을 펼쳐 20세기 초 기독교문화 창달의 전형을 보여

동아리분과	연구방향	비고
독서·연극	독서훈련, 스킷드라마, 연극	각 분과는 정기 발표와 공연을 통하여 건전문화육성, 교육교재 만든다.
CCM·대중음악	교회음악에서 CCM까지, 음악감상, 비평, 체계	
영화·비디오	해외·한국 영화, 비디오 연구, 교재개발	
대중문화 일반	스포츠, 청년문화 등 시사관련 주제 연구	
창조적 글쓰기	언론매체식 글쓰기, 문예창작적 글쓰기	
문화행사기획	기독교 이벤트 기획, 운영, 홍보, 제작 등 실무	

주었다. 그의 은총론은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 문화를 육성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세상 문화를 정죄만 할 것이 아니라 비판할 부분은 비판하여 길을 제시하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은총(common grace)의 입장에서 수용하여 문화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고 말한다.

앞으로 문화는 삶의 모든 분야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등장하게 된다. 기독교 문화와 문화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은 모두 주님의 지상명령(마 28:19-20)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육신화(incarnation)되어야 한다. 복음이 상황화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문화의 기호와 만나지 않으면 복음의 핵심을 이해할 수 없기에 문화는 연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 속에 숨겨져 있는 코드를 발견하여 복음으로 채워 주어야 한다. 비기독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삶의 경향을 띠고 있는지 알면 알수록 복음 전하는 일은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 때 양자를 접맥 시켜 주는 것이 문화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문화육성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 본다.

## 참고 문헌

- 두레사상, 1995 겨울호.  
 목회와 신학, 2000 7월호.  
 강인중, 「대중 음악 불륨을 낮춰요」(서울: 낮은울타리, 1999).  
 김광억 외, 「문화의 다학문적 접근」(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김점옥,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라: 21세기 메타교회의 새로운 성장 전략」(기독신문사 1999, 2쇄)  
 신상언,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서울: 낮은울타리, 1999, 3판 1쇄).  
 이만재,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서울 규장문화사, 1998).  
 이명섭 외, 「현대 문화비평이론의 전망」(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4).  
 이상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1가지 이유」(서울:기독신문사, 2000).  
 이성희, 「미래사회와 미래교회: 21세기 한국 교회 메가트렌드」(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6쇄).

- 한상복 외, 「문화인류학개론」(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28쇄).
- J. Attali, 편혜원, 정혜원 역, 「21세기 사전」(서울: 중앙 M&B, 1999, 2쇄).
- N. Gardels(ed.), *At Century End*, 강광식 역, 「미래의 원시사회: 21세기의 희망과 공포」(서울: 영림카디널, 1997).
- P. Hanson, *Dynamic Transcendence*, 김이곤 역, 「역동적 초월」(서울 컨콜디아사, 1981).
- R. Reighbour, *Where do we go from here? A Guidebook for Cell Group Churches*, 장학일 역, 「셀목회 지침서」(서울: 서로 사랑, 1999, 2쇄)
- George G. Hunter, *Church for the Unchurched*, 홍용표 역, 「불신자들에게 열린 교회가 성장한다」(서울: 서로사랑, 1999, 2쇄).
- W. Knoke, *Bold New World: The Essential Road Map to the Twenty-First Century*, 황태호, 최기철 역, 「21세기 쇼크」(서울: 경향신문사, 1997, 4쇄).
- K. Myers, *All God's Children and Blue Suede Shoes*, 오현미 역, 「대중문화는 기독교의 적인가 동지인가」(서울: 나침반, 1997).
- R. Niebuhr, *Christ and Culture*, 김재준 역, 「그리스도와 문화」(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20쇄).
- F. Schaeffer, 「거기 계시는 하나님」, 「프란시스 웨퍼 전집」 Vol 1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2쇄).
- H. Snyder, *Earth Currents: The Struggle for the World's Soul*, 김현석 역, 「2000년대 지구 동향」(서울: 아가페 출판사, 1998).
- P. Tillich, *Theology of Culture*, 김경수 역, 「문화의 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11판).
- W. Wiersbe, *Preaching & Teaching with Imagination*, 이장우 역, 「상상이 담긴 설교(1권)」, 「이미지에 담긴 설교(2권)」(서울: 요단출판사, 1997, 2쇄).

ABSTRACT

Towards a Christian Response in the Age of Culture War:  
A Study on the Dynamic Movement of Christian Culture

Chu, Tea-Wha

It is correct that the twenty-first century will be the age of culture. Culture should influence not only contemporary lifestyle but also the spirit and unconscious of the human being. Therefore culture may be one of the very important keywords which orients how people exist together.

In postmodern pluralism there are many different cultures which sometimes integrate and sometimes segregate. Christian culture which is rooted in the Words of God confronts in conflict the secular cultures. Mammonism and the commercial trend of postindustrial society will dominate most of all the truth of christian faith. Culture war in this case appears as a strenuous struggle between world view and real life. It is a spiritual war in modern times. Now the christian who possesses social responsibilities cannot deny his cultural role. As H.R.Niebuhr describes "The Christ" as transformer of culture the christian should redeem the culture through his dynamic movement in cultural life. The alienation of the christian from every part of society must end. Here christian church attains more cultural functions.

In this thesis we discuss the role, function and the programs of christian culture which could be used in everyday life, and further

develops the spirit of the christian culture movement. The christian culture movement lets the people recognize their existential identity, because the modern people live as nomads. Christian culture should provide guidance. Modern culture becomes atomized and destructive. Recently it seems to have fallen into nihilism, agnosticism, and fatal negation. The christian spirit should transcend these phenomena.

Therefore christian culture will heal the people who are dominated by nihilistic world views and lifestyles. It should be a culture of healing. In addition, christian culture cannot be isolated from national identity. Christian culture in Korea must realize dynamic transcendence. That is the vision of the cultural movement.